

D의 생활계획표

- 9 시: 감각의 옷 입기
- 18 시: 감각의 옷 벗기
- 21 시: 사탕하며 산책 빨기
- 6 시: 깨어나 꿈을 꾸기

위 생활계획표는 D가 하루의 생활을 나뉘대로 해명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

D는 씻기도 전에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감각이 마비된 그는 감각의 옷을 입는 것을 잊은 채 외출하여 크게 망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

D는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벗기도 전에 옷을 벗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땀이 묻었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입니다

D는 5년 전 몽상 고도비만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살이 찌는 이유는 과도하게 산책을 빠는 식성을 고치지 못한 탓일 겁니다

D는 날마다 착실하게 깨어나지만 한동안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